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3호] 최근 강원지역 수출 동향 및 지역내 파급효과

- 본 고에서는 최근 5년 여간 빠르게 늘어난 강원지역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, 수출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
    - 수출은 2017~2022년중 지역경제 성장의 약 1/10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 수출이 유발한 취업자수는 2022년중 2.2만명으로 수출 금액당 취업 유발효과\*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      - \* 재화수출 10억원당 6.1명의 취업을 유발(2022년 기준)
  - 강원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①신흥시장(중동 등) 개척, ②신규 주력품목(피부미용 의료기기 등) 개발, ③수출 경쟁력 제고(물류 인프라 확충 등)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
- 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[BOK 강원경제 메모 <2023-3호>]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경제조사팀 과장 정희완

Tel : (033) 258-3281 Fax : (033) 257-0525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**BOK**  
**강원경제**  
**메모**  
<2023-3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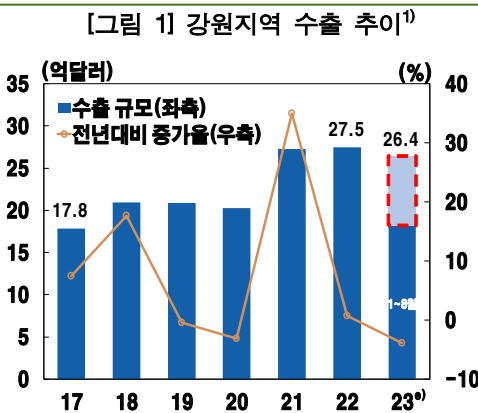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 강원본부  
경제조사팀  
2023년 10월 16일(월)  
작성자: 정희완 과장  
(033-258-3281)

**최근 강원지역 수출 동향 및 지역내 파급효과**

- 강원지역 수출은 지난 5년간(2017~2022년) 연평균 9.0%씩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경제 성장의 약 1/10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
- 수출의 취업유발계수\* (6.1명/10억원, 2022년)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, 향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
  - \* 재화수출 10억원 발생이 지역내에서 유발하는 취업자수(전업환산 기준)
-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①신흥시장(중동 등) 개척, ②신규 주력품목(피부미용 의료기기 등) 개발, ③수출 경쟁력 제고(물류 인프라 확충 등)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

[그림1] 강원지역 수출은 2017년 17.8억달러에서 2022년 27.5억달러로 연평균 9.0% 증가

강원지역 수출은 2017~2022년중 연평균 9.0% 증가



시·군별로는 원주(38.3%), 동해(19.4%), 홍천(16.3%)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

[그림 2] 강원지역 시·군별 수출 비중<sup>1)</sup>



[그림2] 시·군별로는 원주(38.3%), 동해(19.4%), 홍천(16.3%)의 비중이 강원지역 전체 수출의 2/3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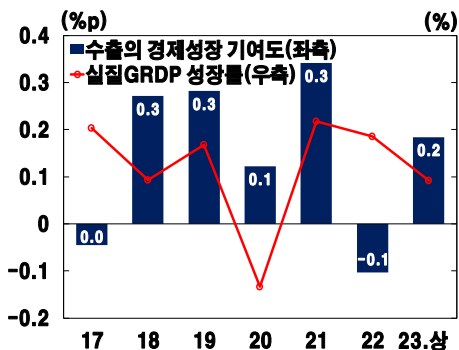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3년은 1-8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여 산출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주: 1) 2023.1-8월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[그림3] 수출은 지난 5년간 지역경제 성장의 약 1/10에 기여하고 금년 상반기 기에도 경기하강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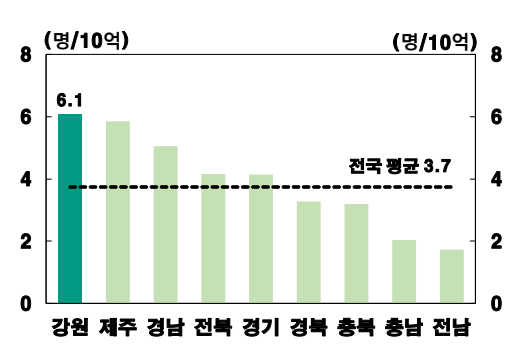
수출은 작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지역경제 성장의 약 1/10을 기여한 것으로 분석

[그림 3] 강원지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<sup>1)2)</sup>



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전국 17개 시·도중에서 가장 높은 6.1(명/10억)을 기록

[그림 4] 지역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<sup>1)</sup>(2022년)



[그림4] 수출은 10억원당 6.1명의 고용을 유발하였으며,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

주: 1) 2022년~2023년 상반기 GRDP는 자체추정  
2) 2023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주: 1) 전국 평균은 17개 시·도 취업유발계수의 평균으로 계산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# 최근 강원지역 수출 동향 및 지역내 파급효과

2023. 10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작성자 : 강원경제조사팀 정희완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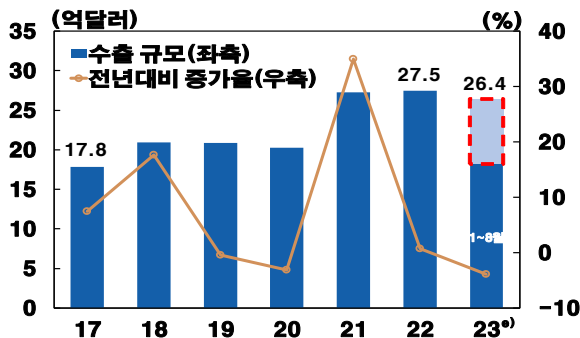
# 1. 검토 배경

□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수출(통관기준 재화수출, 이하 같음)은 2017년 17.8억 달러에서 2022년 27.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, GR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2.2%p 상승(2017년 4.4% → 2022년 6.6%)

○ 2023년에는 약 26.4억달러\*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GRDP 대비 비중(23.상반기 기준 6.2%) 역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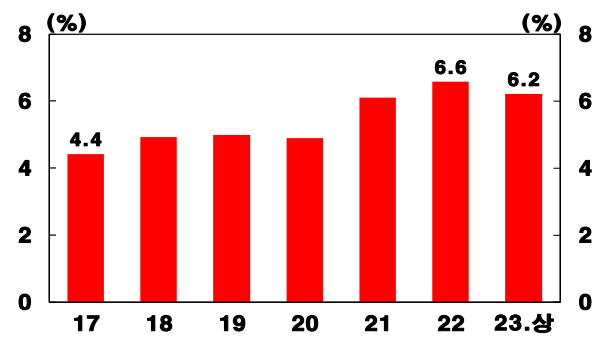
\* 2023.1~8월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-3.9%)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

강원지역 수출 추이<sup>1)</sup>



주: 1) 2023년은 1~8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여 산출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강원지역 수출의 GRDP 대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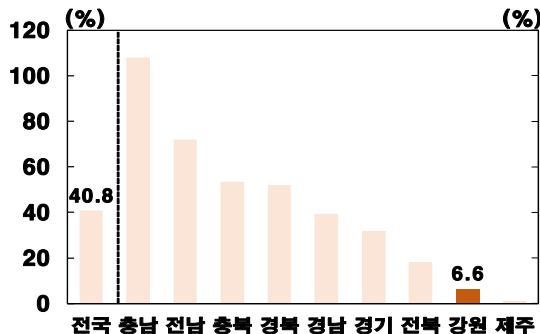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22년~2023년 상반기 GRDP는 자체추정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

□ 수출 비중은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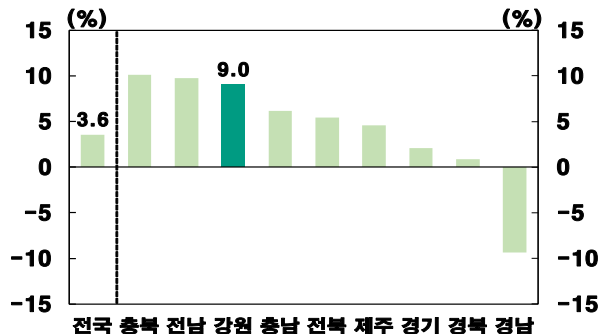
○ 수출의 GRDP 대비 비중(6.6%, 2022년)이 8개 도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지만 연평균 증가율(2017~2022년)은 세 번째로 높은 9.0%를 기록

지역별 GRDP<sup>1)</sup> 대비 수출 비중(2022년)



주: 1) 2022년 GRDP는 자체추정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

지역별 수출 연평균 증감율<sup>1)</sup>



주: 1) 2017~2022년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□ 본 고에서는 강원지역 수출 동향 및 지역경제 성장·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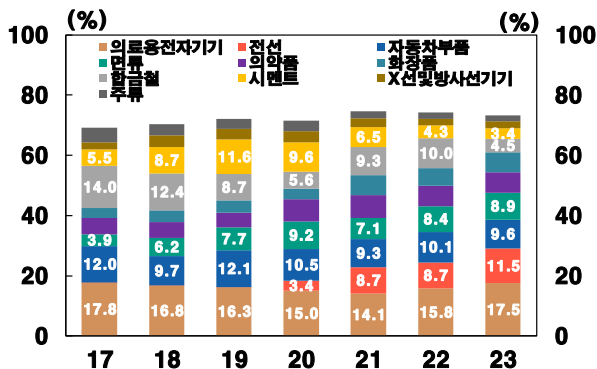
## 2. 강원지역 수출 동향

(품목별)

◆ 수출 품목별 비중(23.1~8월 기준)은 의료용 전자기기(17.5%)가, 지난 5년간(2017~2022년) 연평균 증가율은 전선(+259.5%)이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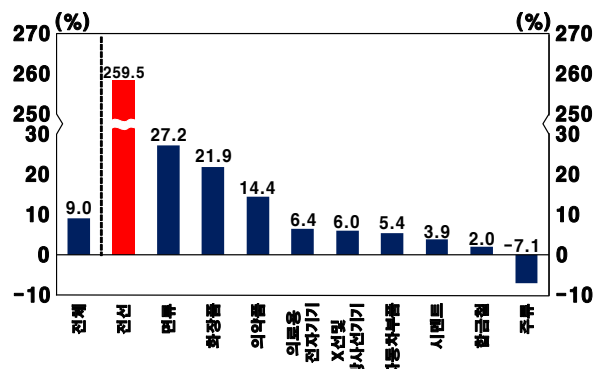
- 2023.1~8월중 상위 10개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의료용 전자기기의 비중이 17.5%로 가장 높고 전선(11.5%), 자동차부품(9.6%), 면류(8.9%) 등의 순
  - 의료용 전자기기는 EU(25.3%, 품목내 비중) 및 러시아(11.1%)를 중심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이 늘면서 품목별 비중 1위를 지속
  - 반면 합금철(21~22년 3위 → 현재 7위)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, 시멘트(19~20년 3위\* → 현재 8위)는 중국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비중이 크게 축소
    - \* 2018년 이후 중국의 시멘트 등 제조업 과잉생산능력 축소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이 증가
- 지난 5년간(2017~2022년)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전선이 259.5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외에 면류(27.2%), 화장품(21.9%), 의약품(14.4%)이 전체 증가율(9.0%)을 상회
  - 전선 수출의 큰 폭 증가는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, 대만 등의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\*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
    - \* 동해시 소재 LS전선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(HVDC)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(23.5월 준공)을 비롯하여 글로벌 4위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
  - 면류 수출도 K-푸드 문화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인스턴트 라면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시현

강원지역 주요 수출품목 비중 추이<sup>1)</sup>



주: 1) 2023년은 1~8월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품목별 수출 연평균 증감율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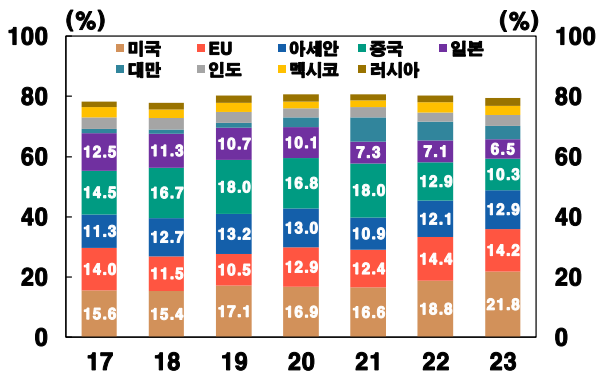
주: 1) 2017~2022년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(국가별)

◆ 수출 국가별 비중('23.1~8월 기준)은 미국(21.8%)이, 지난 5년간(2017~2022년) 연평균 증가율은 대만(46.8%)이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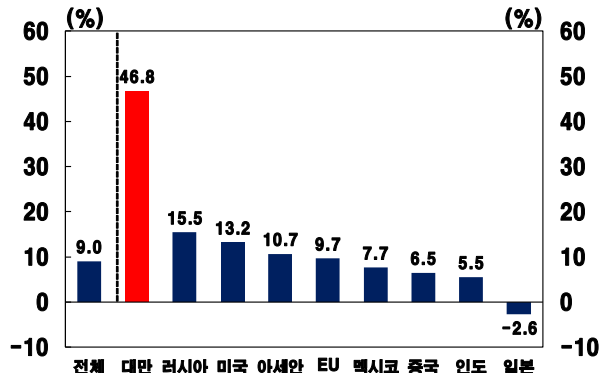
-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對미국 수출 비중이 21.8%로 2017년(15.6%) 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, 중국(14.5% → 10.3%) 및 일본(12.5% → 6.5%)의 비중은 축소
  - (對미국) 2017~2022년중 자동차부품, 면류 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금년에는 전선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('22년 6.3% → '23.1~8월 53.9%)이 급증
  - (對중국) 중국은 2021년 최대 수출국이였으나 화장품('21년 62.4% → '23.1~8월 37.3%, 품목내 중국 비중), 시멘트(38.6% → 0%), 면류(33.0% → 5.3%) 부진으로 비중 축소
  - (對일본) 주력 품목인 주류 수출('17년 90.5% → '21년 77.6% → '23.1~8월 68.4%, 품목내 일본 비중)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부진
-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對대만 수출이 46.8%로 가장 높고 러시아(15.5%), 미국(13.2%) 등이 뒤를 이은 반면, 주요국 중 일본(-2.6%)은 유일하게 역성장
  - (對대만) 도내 기업이 대만 해상풍력단지 건설 1차 사업(2020~2025년)의 전체 8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저케이블 공급계약을 모두 수주하면서 전선을 중심으로 급증
  - (對러시아) 러시아가 강원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용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

강원지역 주요 수출 국가별 비중 추이<sup>1)</sup>



주: 1) 2023년은 1~8월 기준  
 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국가별 수출 연평균 증감율<sup>1)</sup>



주: 1) 2017~2022년 기준  
 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(시·군별)

◆ 시·군별로는 원주(38.3%, '23.1~8월 기준), 동해(19.4%), 흥천(16.3%)의 비중이 강원지역 전체 수출의 2/3를 차지

□ 시·군별로는 원주시의 비중('23.1~8월 기준)이 38.3%로 가장 높고 동해(19.4%), 흥천(16.3%), 춘천(12.4%), 강릉(5.3%), 횡성(3.6%) 등의 순

- 원주시는 자동차부품(품목내 원주시 비중 97.5%) 및 면류(98.9%) 수출을 사실상 전담하는 데다가 의료용 전자기기(26.0%)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
- 동해시는 합금철 부진으로 2020년까지 비중이 하락('17년 19.1% → '20년 15.4%)하였다가 이후 전선 수출이 늘면서 재차 상승
- 흥천군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1위 기업\*이 위치하고 있어 의료용 전자기기(품목내 흥천군 비중 71.1%)를 주력으로 수출

\* 삼성메디슨은 2022년 2.9억달러를 수출하며 업체별 의료기기 수출 1위를 기록(식약처)

강원지역 수출 상위 6개 시·군의 주력 수출품목 및 수출국(2023.1~8월)

지역	수출품목 <sup>1)</sup> (지역내 비중)	주요 수출국	지역	수출품목 <sup>1)</sup> (지역내 비중)	주요 수출국
① 원주 (100.0%)	① 자동차부품(24.5%) 조향장치 등	① 미국 ② 멕시코 ③ 중국	④ 춘천 (100.0%)	① 의약품(50.4%) 보톡스, 콜레라 백신 등	① 에티오피아 ② 태국 ③ 브라질
	② 면류(23.0%) 라면 등	① 미국 ② 말레이시아 ③ 태국		② 화장품(21.3%) 필러 <sup>2)</sup> ,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등	① 중국 ② 영국 ③ 일본
	③ 의료용 전자기기(11.9%) 심장충격기, 산소포화도측정기 등	① 미국 ② 영국 ③ 일본		③ 기타 의료위생용품(6.1%) 치과용 충전제 등	① 러시아 ② 일본 ③ 프랑스
② 동해 (100.0%)	① 전선(58.8%) 해저케이블, 산업용 특수전선 등	① 미국 ② 대만 ③ 네덜란드	⑤ 강릉 (100.0%)	① 주류(21.9%) 소주, 기타증류주 등	① 일본 ② 캐나다 ③ 미국
	② 합금철(23.1%) 페로망간, 실리콘망간 등	① 미국 ② 네덜란드 ③ 일본		② 화장품(14.7%) 필러 <sup>2)</sup> , 기초화장품 등	① 태국 ② 중국 ③ 일본
	③ 시멘트(13.6%) 시멘트 클링커 등	① 미국 ② 칠레 ③ 페루		③ 시멘트(10.8%) 시멘트 클링커 등	① 페루 ② 필리핀 -
③ 흥천 (100.0%)	① 의료용 전자기기(76.6%)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	① 러시아 ② 인도 ③ 중국	⑥ 횡성 (100.0%)	① 화장품(20.4%)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등	① 미국 ② 영국 ③ 태국
	② X선 및 방사선기기(13.7%) X-ray 촬영장비, 디텍터 등	① 미국 ② 영국 ③ 인도		② 문구(20.2%) 볼펜 등	① 미국 ② 멕시코 ③ 일본
	③ 주류(3.0%) 맥주, 탁주 등	① 일본 ② 미국 ③ 홍콩		③ 의약품(9.5%) 항생제, 보톡스 등	① 중국 ② 캄보디아 ③ 베트남

주: 1) 괄호 안은 각 시·군별(100.0%) 해당 품목 수출 비중

2) 성형용 필러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(4등급)에 해당하나 수출 hs code상 기타화장품으로 분류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

### 3. 수출의 지역내 파급효과

- ◆ 강원지역 수출은 2022년 기준 1.45조원의 부가가치(GRDP 대비 2.7%), 2.2만명의 고용(전체 취업자수 대비 2.6%)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
- ◆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비중이 낮아 성장기여율도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, 수출은 지난 5년간 강원지역 경제성장의 약 1/10을 기여한 것으로 분석
- ◆ 취업 유발효과(재화수출 10억원당 6.1명)가 전국에서 가장 큰 점이 특징

\* 이하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(2015년)를 통해 재화수출이 지역내에 유발한 부가가치 및 취업자수의 크기를 추정(" <참고 1>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수출의 지역내 파급효과 계산" 참조)

#### (부가가치 유발효과)

□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(명목금액 기준)은 2022년 1.45조원(GRDP 대비 2.7%)으로 2017년(0.82조원)보다 0.63조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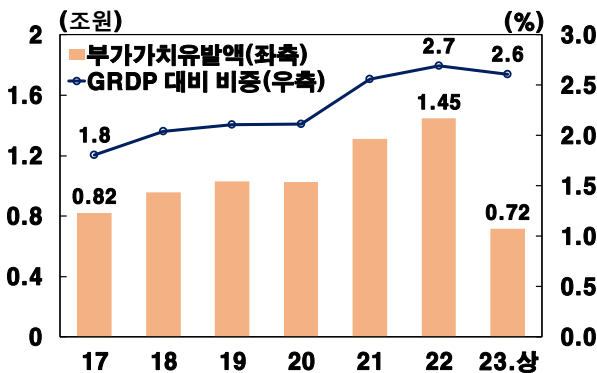
○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(연평균 +12.0%)이 GRDP(+3.4%)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GRDP 대비 비중은 5년간 0.9%p 상승('17년 1.8% → '22년 2.7%)

— 그러나 동 비중은 여전히 타지역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

○ 부가가치유발계수\*는 2022년 0.41로 전국 평균(0.39, 17개 시·도 평균)을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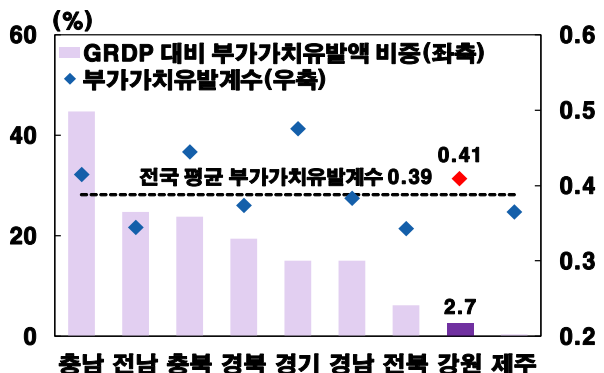
\* 재화수출 1단위 발생이 지역내에서 유발한 부가가치의 크기

강원지역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추이<sup>1)</sup>



주: 1) 2022년~2023년 상반기 GRDP는 자체추정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지역별 GRDP 대비 부가가치유발액 비중 및 부가가치유발계수(2022년)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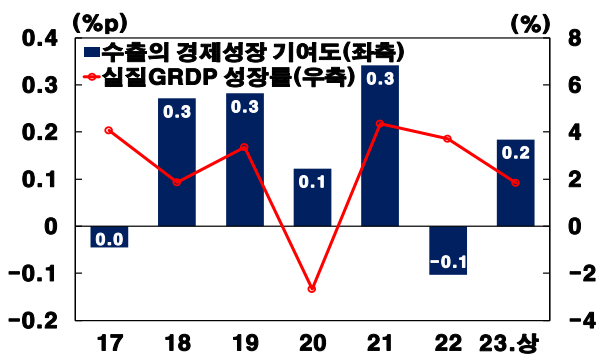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2년 GRDP는 자체추정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

## (경제성장 기여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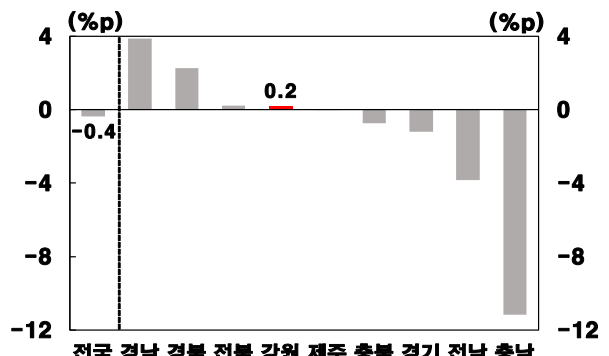
- 강원지역 수출은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(2017~2022년) 성장 기여율이 9.0%(약 1/10)인 것으로 추정(“<참고 2>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계산” 참조)
  - 2022년 강원지역 실질GRDP는 2017년 대비 약 10.9% 증가하였는데, 이 중에서 1.0%p(기여율 9.0%)는 수출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
  - 2023년 상반기에도 수출이 실질경기 하강을 완화(+0.2%p)한 것으로 나타남

강원지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정<sup>1)2)</sup>



주: 1) 2022년~2023년 상반기 GRDP는 자체추정  
 2) 2023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 
 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지역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(2023년 상반기)<sup>1)2)3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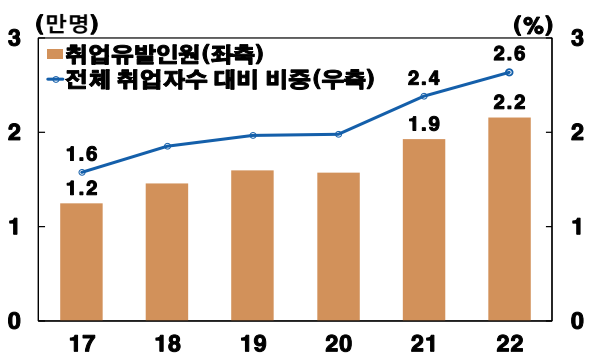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2년~2023년 상반기 GRDP는 자체추정  
 2) 전년동기대비 기준 3) 전국의 경우 GDP 데이터 기준  
 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## (취업 유발효과)

- 수출의 취업유발인원(전업환산 기준)은 2022년중 2.2만명(전체 취업자수의 2.6%)
  - 특히 수출의 취업유발계수(6.1명/10억원)가 전국 17개 시·도중에서 가장 컸으며,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국 평균(3.7명)을 상회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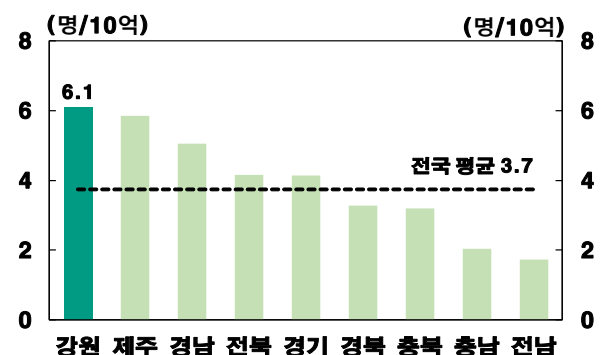
\* 면류(8.58), 의료용 전자기기(6.93), 시멘트(6.44), 의약품(5.84), 화장품(4.39), 전선(4.12) 등

강원지역 수출의 취업유발인원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지역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(2022년)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은행, 자체추정

## 4. 평가 및 시사점

- 강원지역 수출은 지난 5년간 빠르게 늘어나면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
  - 수출의 취업 유발효과가 큰 산업구조로 인해 수출 확대가 지역민의 고용 증가\*로 이어짐
    - \* 이는 지역민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
  - 또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\*
    - \*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과 실질GRDP가 지난 5년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성장기여율은 약 13.5%까지 높아짐(2017~2022년 9.0% → 2022~2027년 13.5%)
- 향후 수출이 성장동력으로 보다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업계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신홍시장 개척, 신규 주력품목 개발,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
  - 한류 문화 확산을 십분 활용하여 주요 소비재인 화장품, 식품, 주류 등의 신홍시장 수출 확대에 주력
    - 특히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소비재의 對중동 수출이 연평균 39.5% 증가하며 모든 대륙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 주목
  - 의료기기 등 기존 주력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관 품목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하고, 지자체 등이 이를 적극 지원
    - 예를 들어 의료기기, 미용제품(보톡스, 필러)에서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레이저, 고주파, 초음파 피부미용기기\* 등으로의 확장을 고려
      - \* 글로벌 미용시술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5% 성장 예상(GrandViewResearch)
  -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\*(도로, 항만\*\* 등), 해외 마케팅 지원(해외전시회 및 상담회) 등 도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
    - \* 2016년 기준 강원도의 단위 물류비는 국가 평균 대비 약 1.7배 수준(강원연구원, 2022)
    - \*\* 최근 옥계항(강릉, 8월), 동해항(9월)에서 국제 정기항로 컨테이너선이 취항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, 항만 물류 인프라 확대와 함께 수도권 해운화물 유치 등으로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

<참고 1>

**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수출의 지역내 파급효과 계산**

- 품목별로 분류된 재화수출 데이터를 지역산업연관표(2015년)의 산업별 분류로 전환한 뒤 투입산출표의 산업연관계수를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계산
  - MTI 4단위 기준 590개 품목으로 분류된 수출액(원화 환산)을 산업연관표의 83개(통합중분류 기준) 부문으로 재분류한 뒤 산업연관표 부문별 수출액을 산출
  - 상품의 투입 및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된 산업별 산업연관계수\*(부가가치유발계수, 취업유발계수)로 재화수출이 지역내에서 유발한 부가가치 및 취업자수\*\*(전업환산 기준)를 계산
    - \* 강원지역의 최종수요 한 단위에 의해 유발된 강원지역의 부가가치 또는 취업자수의 크기
    - \*\* 취업자 = 임금근로자(상용직+임시·일용직)+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
  - 추정된 부가가치유발액 및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최종수요(재화수출) 발생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및 취업자수를 의미

<참고 2>

**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계산**

-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(율)는 재화수출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가 실질 GR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나타냄
  - 경제성장 기여도(%p)는 “실질부가가치유발액\*의 증가율×(전년도 명목부가가치유발액/전년도 명목GRDP)\*\*×100”으로 측정
    - \* 명목부가가치유발액을 상품 수출의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
    - \*\* 전년도 기준 부가가치유발액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
  - 경제성장 기여율(%)은 “경제성장 기여도/실질GRDP 증가율×100”으로 측정